

스포츠에서의 관용의 윤리

임석원*

주제분류 스포츠 윤리학

주요어 관용, 공존, 이타심, 스포츠맨십

요약문

왜 관용의 윤리인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불관용의 현실적 상황이 만연된 모습은 신념의 부재이거나 도덕성의 무감각으로 치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좀 더 교양 있는 사회로 발전되고 스포츠 문화 역시 고질적 권위주의와 연고주의에 매몰되어 황금만능의 상업주의로의 현실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스포츠 문화의 건전화는 요원한 일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스포츠 문화에도 불관용을 최소화하고 관용의 윤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관용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도덕적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는 일과 적극적으로 연관된 윤리적 덕목인 것이다. 따라서 관용을 실천하려면 도덕적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율성 없는 관용은 실천의 정당성이 확보 될 수 없으므로 무의미하다. 스포츠의 특수한 상황에서 볼 때 관용은 긍정과 부정의 선택이 강요된 문제가 아니라 부정 다음에 오는 긍정적 태도인 것이다. 곧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해주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율을 확장한다는 긍정적 태도에 관용의 윤리는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무분별한 부정의식, 정당성 없는 지역주의, 신념과 이론이 부재한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와 같은 현상은 관용의 덕과 윤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가톨릭 관동대학교

1. 서론

관용¹⁾이란 단어에는 선, 관대함, 협력이라는 가치와 함께 불쾌함, 일방적 판단, 혐오라는 상반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관용은 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것, 천박한 것, 부적절한 것, 더 나아가 불쾌하고 매스꺼운 것들의 존재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관용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보다는 단지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을 제시해 줄 뿐이다. 따라서 관용에 지양은 없다. 물론 정화나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관용은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 것들을 건디는 고상한 방식을 가르쳐 주며 자신의 원칙과 다른 것을 참아내는 이에게 미덕을 갖췄다는 칭송을 보낸다. 관용은 겸손한 우월함의 위치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관용의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고통이나 곤경을 건디어내는 행위. 둘째, 무언가를 허락하는 행위(특히 권위 있는 자의 인정이나 승낙). 셋째,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관대하게 수용하는 태도라고 볼 때 결국 관용은 포용이라는 부드러운 가면을 쓴 권력 행위이다.²⁾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와 다원적 사회의 현실은 서구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외국 근로자의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대 등 이러한 현실은 전통적 가족주의에

-
- 1) Toleration과 'Tolerance'의 구별은 사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지고 있지 않다. 즉 'Toleration'을 힘에 의한 묵인과 인내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Tolerance'은 자신과 상충되는 입장을 거부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힘으로 관철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를 거부의 행위로 표출하지 않고, 수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Priston king(1976), *Toleration*, st martin's press, 29-33쪽).
 - 2) Wendy Brow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웬디 브라운, 『관용』(이승철 역), 갈무리, 2013, 58-59쪽.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서도 외국인 선수의 영입과 우리 선수들이 타국으로의 진출 등은 스포츠 분야에도 국제적 안목을 도외시킬 수 없다. 고로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스포츠문화도 세계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스포츠에서는 스포츠맨십의 실천이 현실을 조화롭게 해결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에서 아직도 연고주의가 탈피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스포츠계에도 공존과 타협의 미덕으로서 '관용의 윤리'³⁾와 실천이 중요한 현실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관용의 의미와 윤리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스포츠에 있어서도 관용의 문제를 제기하여 스포츠 불관용의 극복에 일조하는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둔다.

2. 관용의 의미와 정당화

오늘날 관용의 담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유엔의 회의장이나 국제 인권운동 속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로 관용이 언급된다. 서구에서 관용은 다양한 인종의 이웃들을 한데 묶어주고 평화적 공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책이자 그리고 늘어만 가는 증오 범죄에 대한 해독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⁴⁾ 더구나 관용은 국가와 문

3) 김용환은 한국철학회지 87집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관용이 단순히 여러 가지의 도덕적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규범체계로 확장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용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적합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 10쪽).

4) Wendy Brow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웬디 브라운, 『관용』(이승철 역), 갈무리, 2013, 19쪽.

화를 초월한 두터운 역사적 지층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 속에서 옹호되거나 비판 받으며 굴절되어 왔다. 그리고 관용은 개별국가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대상을 가진다. 즉 관용은 흔히 생각하듯이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의 원리원칙의 미덕이기 보다는 목적과 내용, 행위,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지리적 변형태를 가지는 담론의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관용이 갈등의 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기획과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관용의 목적과 대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⁵⁾ 관용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논구하면 다음과 같다.

존 로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의거하여 관용론을 제창하였다. 국가는 교회의 영역에 개입하여 특정 종교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는 관용론의 한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한다면 종교 역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만일 종교가 고유의 영역인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한다면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 개입한 것이다.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면 종교는 정치적 강제력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로크는 관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세 가지 들고 있다.⁶⁾ 첫째, 시민사회를 해치는 의견은 관용 될 수 없다. 둘째, 다른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종교는 관용 될 수 없다. 셋째, 무신론자들은 관용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약속, 계약, 맹세 같은 인간사회의 유대관계처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인간사회를 해치며 또 종교를 파괴함으로써 관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⁷⁾ 국가의 권력이 오직 시민적 관심사에만 미치고 개인의 영혼 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크가 주장하는 논거는 양심의 자유다. “내 양심의 명령을 거

5) 같은책, 23쪽.

6) J. Locke(1794), *The work of John Locke*, vol 6, Thoemmes Press, 45-47쪽.

7) 김응중, 『관용의 역사』(2015), 푸른역사, 308쪽.

스르고 걷는 길은 어떤 것이라도 나를 축복받은 사람들의 안식처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종교의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로크는 양심의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에르 벨은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사람이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용의 역사에서 벨은 무신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벨은 로크보다 급진적이었⁹⁾ 따라서 철학자 벨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의 문제는 철학검증에서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이며 또한 섭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은 자의적으로 세상에 개입하여 자신이 세운 자연법칙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벨은 종교와 도덕을 구분한다.¹⁰⁾

그리고 벨은 양심의 권리에 기초하여 종교적 자유와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동시대의 관용론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벨은 종교와 철학, 종교와 도덕,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면서 완전한 관용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의 군주는 종교의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고 성서의 구절은 이성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잘못된 양심이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벨의 핵심적인 논거였다.¹¹⁾ 그는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관용을 주장했으며 양심의 신성을 부여했다.

다시 말하면 로크는 관용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보았고 벨은 불관용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로크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불관용으로 점철되어있다. 따라서 관용은 종교개

8) J. Locke(1794), *The work of John Locke*, vol 6, Thoemmes Press, 41쪽.

9) 김응중, 『관용의 역사』(2015), 푸른역사, 309쪽.

10) 같은책, 310쪽.

11) 같은책, 313쪽.

혁의 산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종교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종교적 관용의 근거가 된다고 믿어지는 3가지의 태도인 자유주의, 중립주의, 상대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자유주의적 태도로서 관용은 권리의 일종이 아니며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제공하는 허가의 일종으로서 관용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유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유 없이는 관용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관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반대와 부정적인 행위의 자발적인 중지라고 했을 때, 그 중지 속에는 이미 관용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자유의 문제는 선택의 자유의 문제이며 선택의 자유는 개별적 선택에 대한 보장이 전제조건이 되며 이는 곧 종교적 관용의 근거문제로 환원된다.¹³⁾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대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으나 종교적 관용과 관련된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다. 첫째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확신위에 근거되어 있고 종교나 형이상학적 주장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진리의 발견과 행복 추구를 인간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고, 도덕에 대해서도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립주의란 용어는 일종의 조어로서 국가의 불간섭주의나 자유방임주의와 의미상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으로 중립성의 원칙은 종교적 관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를 말한다.¹⁴⁾ 세 번째로 상대주의는 진리 또는 가치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 또는 부정확성은 그 판단을 내리는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론적

12) 같은책, 314-315쪽.

13)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2016), 철학과 현실사, 80-81쪽.

14) 같은책, 84-85쪽.

태도이다. 그리고 상대주의를 세분화해서 인지적 상대주의, 개념적 상대주의, 신학적 종교적 상대주의 등으로 말하고 있다.¹⁵⁾

그러면 어떻게 종교적 상대주의가 관용론의 근거가 되는가? 홉스는 그의 관용에 대하여 『리바이어던』에서 종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종교의 자연스러운 씨앗이다. 그리고 홉스는 관용과 자유의 확대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경쟁적인 기독교의 교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시민전쟁의 원인들 중 상당 부분이 사소한 교리의 해석 차이와 종교적 자유를 부인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종교의 다른 교파들 사이나 같은 국가내의 당파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치열한 전쟁 곧 시민전쟁으로 빠지게 만든 책임은 통치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가들과 종교적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이와 같이 홉스가 일관성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국가의 목적과 교회 종교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홉스가 본 동일한 목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론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정치론의 최종 목적은 국가 내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이며 시민전쟁은 따라서 국가의 목적에 정면으로 대치됨으로 갈등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정부를 가지는 길밖에 없다고 보았다. 둘째, 교회의 분열은 홉스에게 국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셋째, 통치자만이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등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위에서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론을 정당화 했다. 넷째, 하나님 의 왕국론은 홉스의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론을 정당화해준다. 따라

15) 같은책, 87쪽.

16) Thomas Hobbes(1985), *Leviathan*, C. B .Macpherson ed., Penguin Books, 168쪽.

서 교회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해야 하며 세속적인 국가가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⁷⁾ 이와 같은 홉스의 교회에 대한 국가 우위론을 보면 국가가 교회와 종교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교회에 대한 국가 우위론이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확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존 롤스의 ‘관용론’은 그의 저서 『정의론 2부』 『제도론 4장 33절』 평등한 자유, 34절 관용과 공의,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에서 다루어진다. 첫째로, 평등한 양심의 자유는 정의의 제 1원칙인 자유의 우선성을 해명한 정의론 33절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민 각자가 도덕적 존재로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경우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될 협동의 체제의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에 의거한 도덕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들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⁸⁾

또한 무지의 장막이 드리워진 원초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입장들이 갖는 상대적 강점을 불확실성의 선택상황으로 타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양심의 자유도 인정받는 상호 관용이 이룩된다.¹⁹⁾ 이에 대해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약론적 입장에 따르면 공리주의적 원칙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공감하는 근거는 평등한 자유가 전혀 다른 기반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본질적 가치의 총계를 극대화 시키는 방식도 아니며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도 아니다.²⁰⁾

존 롤즈는 공리주의나 선에 대한 완전설이 적용되는 사회와 달리 공정

17) Thomas Hobbes(1972), *De Cive*(ed. B. Gert, 1972). ch. 1, art 5 .114-115쪽. (김용환, 2016, 92-93쪽. 재인용).

18) J.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13. 존 롤즈,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 2005, 281쪽.

19) 박준웅, 「롤즈의 관용론」(2006),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1쪽

20) J.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13. 존 롤즈,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 2005, 288쪽.

으로서의 정의가 사회의 원칙이 되는 사회가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양심의 자유의 표명이 극대화 되어져 그것이 사회적 탄압과 억압의 불관용적 행위로 결과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공익이라는 더욱 큰 사회적 선에 대해서 규제되어질 필요가 있게 된다.²¹⁾ 다음으로 공익과 관용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규제 되어지는 양심의 자유가 단체나 집단의 세부적인 규율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롤스의 주장을 보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종교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정부가 종교적인 문제를 관심 밖으로 여긴다든가 또는 그것을 탄압할 권리를 주장하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²²⁾

롤스의 관용과 공익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증은 관용은 실제적인 필요성이긴 하나 국가적인 이유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자유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갖는 우선성을 가정할 경우 평등한 자유를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더 큰 부정이나 자유의 상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²³⁾ 또한 롤스는 관용론에서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관용의 역설로 알려져 있으며 도덕적 딜레마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롤스는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구분하고 있다. 첫째, 불관용하는 종파가 자기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할 명분이 있는가? 둘째, 관용적인 종파가 불관용적인 종파에게 어떤 조건하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셋째, 언제나 관용적인 종파가 관용

21) 박준웅, 「롤스의 관용론」(2006),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2쪽

22) J.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13. 존 롤스,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 2005, 289쪽.

23) 같은책, 292쪽.

을 배필지 않을 권리를 가질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러한 권리가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이다.²⁴⁾

이와 같은 관용의 역설을 도덕의 딜레마²⁵⁾의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불관용자를 관용하면 관용의 정신을 지킬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관용이 결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불관용자를 불관용하면 관용의 정신을 지킬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불관용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해야만 관용의 역설에 관련된 문제를 살린다고 볼 수 있다.²⁶⁾ 그리고 도덕적 관용에 관련된 도덕적 관용의 역설을 살펴보면 “타인의 신조를 배척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근거는 도덕적인 것인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관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러한 도덕적 요구는 역설일 수밖에 없다.²⁷⁾

3. 관용의 윤리적 성격

관용은 선, 정의, 자유 등과 같은 개념처럼 한 가지 뜻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관대함, 너그러움, 용서함과 같은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용은 반대와 용납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편으로 저항 할 수 있

24) 존 롤즈,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 2005, 295쪽.

25)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도 도덕적 고뇌와 후회를 하게 되는 그리고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압도할 만한 도덕적 근거를 지니지 못하는 A와 B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 중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을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라 부른다(김상범, 철학연구, 1994, 34호 참조).

26)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2016), 철학과 현실사, 271쪽

27) 김상범, 「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연구」(2013),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22쪽

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정책에 반대하는 부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대하면서 용납하는 관용의 공식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관용은 자유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한 묵인과 복종은 자유의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관용을 정의할 때 외연의 양이 많은 용납보다는 내포의 양이 증가된 부정적 행위의 자발적 중지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⁸⁾.

또한 우리가 서로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약하고 불일치하고 변덕스럽고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추론된 논리적 도덕적 결과가 관용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는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사회적 습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관용은 타인의 이질적인 신념이나 의견 사상 가치 등에 나 자신의 행위가 얼마큼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불완전성의 원리로부터 기인된다. 만약 누가 관용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확대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완전성의 원리를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관용은 도덕적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요구되는 개념으로서 불관용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다기보다는 공존함으로서 충돌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회가 다른 신념을 유지하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은 타자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하여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적응성을 높임으로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요청되는 사회적 가치와 덕목이 바로 관용인 것이다.

그러면 관용은 도덕적인 맥락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이 제 일(一)의 덕목인가? 아니면 이(二)급의 덕목인가? 프레스턴 킹의 관용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적절한 위치에

28)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2016), 철학과 현실사, 34쪽

두지 않는다면 이론에 허구성을 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²⁹⁾

그러므로 관용은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관용은 배푸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명령이다. 무엇을 배푸다는 것은 힘을 가진 강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약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풀 수는 없다. 따라서 관용을 배푸는 주체도 강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관용은 덕목일 뿐만 아니라 태도 또는 정도의 문제이다. 관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공존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와 같이 관용을 정도나 태도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관용의 양 극단인 불관용과 전적인 수용 사이에 어느 중간지대에 있는 가치라고 보는 것이다.

관용의 윤리는 관용의 정당화와 연관된다. 정당화의 근거는 도덕성 논증, 실용주의 논증, 합리성 논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도덕성 논증은 평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관용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승리하는 대상에 대해 불승인하는 용납하고 부정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즉 평등과 자유가 결합됨으로서 관용은 실천적 덕목이 된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관용을 실천하려면 반대되는 대상에 대해 용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율성과 인내심 그리고 반대의 거부 등이 개입된다. 이런 행동을 하려면 도덕적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없는 관용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곧 관용은 복종, 강제적 시인 또는 묵인하는 행위에 그칠 뿐이므로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여기서 도덕성 내지 자유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자유이며, 절차적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실질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실제적 자유주의는 바람직한 신념을 유지하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실용주의 논증에서 곧 분별력으로부터의 논증은 관용의 윤리가 전통 윤리학의 한 입장과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는 태도로서 관용의 기준과

29) Preston King(1976), *Toleration*, George Allen & Unwin, 12-13쪽.

한계에 대한 합의가 불확정적이라는 뜻이다. 곧 이것은 관용의 윤리가 상대주의적 입장임을 주장하는 것이다.³⁰⁾

합리성으로부터의 논증은 인간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 들어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념 평등성에 대한 믿음 타고난 자유의 전제 그리고 무제한적인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이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³¹⁾ 또 합리주의자들은 관용의 덕이 종교적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가 불관용을 낳기 때문에 이성의 계몽은 불관용을 완화시킨다고 보았다.³²⁾

불관용의 근거들로서는 공포의 감정으로서 가치상대주의의 광신주의가 있고 그리고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지만 불관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불안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관용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도덕적 결함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불관용의 근거는 첫째로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백인과 유색인, 남성과 여성, 편견과 차별, 신체적 특성과 장애와 같은 것들이 불관용을 야기 시킨다. 둘째로 불관용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문화적 조건과 교육환경과 직업 등도 불관용을 야기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로 불관용은 종교적 이념적 성향이 불관용을 낳게 하는 것들이다. 넷째로 불관용은 무지로부터의 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같은 것들도 자기보존의 욕구의 불만에 기초되어 있다.³³⁾ 관용은 예와 아니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오라는 부정적 선택 다음에 요청되는 긍정적 태도이다.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선이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듯이 관용의 주체와 대상도 바뀔 수 있다. 마이클 왈쩌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관용

30)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2016), 철학과 현실사, 225-226쪽.

31) J. Locke(1983),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Mario Montuori ed, 3쪽.

32) 같은책, 217. (김용환, 2016, 230쪽, 재인용)

33)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2016), 철학과 현실사, 230-232쪽.

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관용해야 할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관용론인 『관용에 대하여』를 시작하고 있다.³⁴⁾

관용의 윤리를 확립하고 불관용의 현상들을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헨렌 윈이 제시한 종족적 관계 복원을 위한 제안을 불관용의 제거를 위한 기술로 확대 제안하고자 한다. 그녀는 지배적인 다수 종족이 소수민족에게 해야 할 실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친근한 사이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넷째, 타자의 소리를 듣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단일 문화적 태도를 포기해야 한다. 여섯째, 동일한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일곱째, 소수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데 유용한 덕목인 관용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실천해야 할 과제로서의 덕목이 관용이다.³⁵⁾

4. 스포츠에서의 관용의 윤리

1) 가치의 선택과 관용

크레츠머는 그의 저서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에서 가치를 선택하고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관용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절차는 개인적이거나 지역적인 선호여서는 안 되고, 모두의 삶에 근거가 되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가치의 선택을 규형 있게 하는 것

34) Michael Walzer(1997), *On Tol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7쪽.

35) Helene Wong(1995), *Ching Chong China men : When Friends Becomes Stronger*, Celebrating the UN Year of Tolerance, Foundation for Peace Studies/ New Zealand, 44쪽.

에 관용의 개념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³⁶⁾

물론 가치는 좋음(good)으로서 도덕적 가치와 비도덕적 가치로 구분된다. 도덕적 가치는 정직, 양심, 애정, 검약, 근면, 용기와 같은 것들이고 비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삶에서 소망하는 것들로서 즐거움, 지식, 부, 안전, 우수함, 우정과 같은 항목들을 가르친다.³⁷⁾ 따라서 관용의 문제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순위 매기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용한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곧 공존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크레츠머는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들에서 관용과 신중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가치판단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첫째로 건전한 가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강조, 둘째로 문화적 차이와 개인들의 삶의 유형을 강조하는 다양성의 허용, 셋째로 어떤 가치가 특정 문화에서 관심을 받으며, 구체적인 관심을 받아야 하는지 숙고하고 타협하며 결론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⁸⁾

또한 크레츠머는 불관용과 대담함의 근거들을 논하면서 관용과 신중함이 필요하여도 맹목적인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전통이라고 해서 관용과 확신을 부여해서도 안 되고, 오직 좋은 전통과 결정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스포츠는 우정, 자유, 개인적인 표현과 같은 가치들을 육성하지만 인종주의의 전통을 강화 시킨다던가 여성을 폄하하는 성차별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통과 악습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건전한 가치 선택을 위한 관용에 대한 강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하여, 대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만 한다.³⁹⁾

36) R. Scott Kretchmar(1994),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Human Kinetics, 124쪽. 크레츠머, 『스포츠 철학』(김창룡, 안용규, 김홍식 역 참조), 대한미디어, 2001.

37) R. Scott Kretchmar(1994),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Human Kinetics, 111-112쪽.

38) R. Scott Kretchmar(1994),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Human Kinetics, 124-125쪽.

39) R. Scott Kretchmar(1994),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Human Kinetics, 125-

그럼으로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설계는 물론 스포츠에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인생과 관련된 체력, 지식, 운동기술, 즐거움 등과 같은 가치들을 스포츠맨십과 관련하여 자기개발이나 인간의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가치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건강과 관련된 가치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체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일정한 방법으로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만족할 만한 가치인 것이다.⁴⁰⁾ 따라서 크레츠머는 좋은 가치와 좋은 삶은 전통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전제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2) 관용의 덕과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재미와 쾌감 그리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며 중용(moderation), 관대함(generous)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리고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헌신과 희생 그리고 강인함의 정신에 의해 규정되는 경쟁적인 활동으로서 그것에 수반되는 스포츠맨십은 도덕적 범주와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맨십의 강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규칙을 준수할 것 ②동료와 신뢰를 지킬 것 ③건강을 유지할 것 ④화내지 않을 것 ⑤거칠게 경기하지 말 것 ⑥승리에 자부심을 가질 것 ⑦패배에 겸손할 것 ⑧건강한 육체 속에 건전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 할 것⁴¹⁾

그럼으로 진정한 스포츠의 목표는 스포츠 활동에 타당한 행동과 태도가 주요 결정 요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이러한 목표는 활동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즐거움과 직접적인 기쁨임으로 스포츠 정신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덕목은 관대함이다. 이러한 정신의 결과로 모든 불쾌

126쪽.

40) R. Scott Kretchmar(1994),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Human Kinetics, 112쪽.

41) Keating, J. W. (1964) *Sportsmanship As A Moral Category*, In Morgan, W. J. Meier, K. V, Schneider, A. J. (Ed.) *Ethics In Sport*, Human Kinetics, 8-200쪽.

함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이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맨정신의 본질은 동일한 원리의 적용에 의해 결정되고 명예로운 승리는 운동선수의 목표이며 운동선수의 강령은 시합 도중이나 후에도 승리의 가치가 손상되거나 비하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승리에서의 겸손과 패배에서의 평정심은 훌륭한 자기 통제를 증명하는 것이며, 운동선수의 목표를 고양시킨다.⁴²⁾

스포츠맨 정신은 단지 특별한 행동강령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진실성, 용기, 스파르타적 인내심, 자기통제, 자기존중, 사치에의 경멸, 타인의 의견과 권리에 대한 고려, 예절, 공정성, 아량, 높은 명예심, 협동, 관대함 등과 같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도덕적 성질들을 단순히 합의하고만 있는 집합체가 아니다. 그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도덕적 성질들은 우리가 스포츠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강령들을 해석하는 태도, 자세, 방식의 근거가 되며, 이와 같은 덕목들을 가진 참가자를 스포츠맨쉽을 가진 스포츠맨으로 규정하는 본질적인 도덕적 습성이나 성질들로 작용된다. 스포츠의 주요 목적은 물고기를 잡거나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시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도로부터 즐거움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과정에서 동료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범주 안에 드는 용기, 자기통제, 협동, 그리고 명예심과 같은 훌륭한 도덕적 성질들의 결합된 상태만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벅찰 수도 있다. 관대함과 아량은 스포츠맨답다고 타당하게 서술된 행동과 태도에서 본질적인 요소들이기는 하나 스포츠가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 즉 승리감에 도달하는 것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맺음으로 작용하는 것이기에 스포츠 참가자들이 즉각적 즐거움이라는 피상적 즐거움에

42) Ibid, 19쪽.

만 안주하지 않도록 해준다.⁴³⁾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행위와는 무관하지만 스포츠 활동은 경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묻는다. 스포츠맨십은 경쟁이 갖는 잠재적 부도덕성을 일반적인 도덕적 목적에 의해 제어하여 스포츠의 궁극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도덕적 기제이다. 또한 스포츠맨십은 경쟁의 부정적인 요소를 도덕규범을 통해 억제한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경쟁 이전의 마음가짐으로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 자체를 즐길 것을 주문하고 경쟁의 과정에서는 악의 없는 순수한 경쟁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규칙의 준수, 페어플레이, 심판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쟁 이후의 마음가짐으로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 패자에 대한 배려, 승자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를 권장한다. 또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활동이 단순히 규칙에 의거한 경기라기보다는 경쟁이라는 형식을 뛰어넘어 인간사이의 도덕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행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정신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맨십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다.⁴⁴⁾

스포츠맨십과는 구별되게 페어플레이는 유리함과 불리함의 계산 없이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경기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야 할 의무, 즉 페어플레이에 저촉된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은 경기를 지연하는 동기 자체의 비순수성 혹은 반규범성을 문제 삼는다. 그럼으로 스포츠맨십은 경기의 지연으로 얻는 승리가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반적인 덕목들에 비해 값진 것인가를 되묻는다. 이처럼 스포츠맨십은 경기 자체에서 일반적인 윤리의 덕목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스포츠 정신을 말하며, 페어플레이에 비해,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43) Ibid, 12-13쪽.

44) 김정효, 『스포츠 윤리학』(2015), 레인보우 북스, 42-44쪽.

45) 같은책, 44-46쪽.

3) 스포츠경기에서의 관용적 사례

스포츠 경기에서 관용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논자는 그것을 관용을 베푸는 행위자의 태도에 따라 수동적 관용의 경우와 능동적 관용의 경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수동적 관용의 경우는 이른바 스포츠 경기에서 존재하는 불문율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중앙일보의 김효경, 박린 기사는 2017년 6월 27일 24면에서 그것과 관련한 기사를 제시⁴⁶⁾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야구와 축구에서 있었던 사례를 열거하여 설명한 것이다. 보통의 관용의 실행은 강제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용은 철저히 그것을 베풀 위치에 있는 존재의 자유의사에 달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된 사례는 관용의 적용이 하나의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규칙 즉 불문율처럼 굳어진 사례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경우 관용의 배움을 받지 못한 상대는 강하게 상대의 불관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저항하게 된다. 이는 스포츠나 스포츠외의 다른 사회현상에서의 관용의 적용과 실재를 놓고 볼 때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관용을 베푸는 주체가 자신의 의사와

46) 지난 23일 프로야구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구장. 두산의 승리(9-1)로 경기가 끝난 뒤 롯데 이대호(35)는 두산의 2루수 오재원(32)을 따로 불렀다. 이대호는 굳은 표정으로 오재원에게 뭔가를 이야기했고, 후배인 오재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선배인 이대호가 다른 팀 후배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훈계...크게 앞서고 있는 팀이 상대팀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불문율’을 어긴 것을 해석할 소지도 있었다. 2011년 10월 19일 프로축구 삼성과 알 사드(카타르)의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이 열린 수원월드컵경기장. 후반 막판 리지크와 최성환이 몸싸움 도중 나란히 부상을 당했다. 수원의 염기훈은 두 선수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을 그라운드 밖으로 일부러 차냈다. 알 사드 선수들은 스로인을 한 뒤 공격권을 넘겨주기 위해 공을 수원골키퍼 정성룡 쪽으로 찼다. 그러나 그때 알 사드 공격수 마마두 니앙이 갑자기 공을 잡은 뒤 골키퍼 정성룡을 제치고 골을 뽑아냈다. 흥분한 수원 팬이 그라운드에 난입하자 알 사드 선수들은 폭력까지 휘둘렀다. 스포츠 세계에는 여러 가지 불문율이 있다. 치열한 승부와는 별개로 상대 팀이나 선수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생겨난 암묵적인 규칙이다. 정식 룰은 아니기 때문에 어긴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다. 하지만 불문율을 어길 경우 갈등이 불거진다.

는 반하여 주변이 부추기는 유무형(주변의 향거와 시선)의 강요 때문에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관용을 ‘수동적 관용’ 또는 ‘불문율적 관용’라 부르고자 한다.

능동적 관용의 사례에 대해서는 SBS의 최희진 기자가 2016년 7월 5일자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⁴⁷⁾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이집트 유도 선수 ‘라슈완’은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이전의 경기에 인위적 및 일시적으로 발행한 약점 즉 부상 부위에 대한 공격을 자제함으로써 자신의 상대였던 일본 선수인 야마시타가 금메달을 수여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김인섭의

47) 1984년 LA 올림픽 유도 남자 무제한급 결승. 일본의 유도 영웅 야마시타 야스히로와 이집트의 모하메드 알리 라슈완이 맞붙었습니다. 야마시타는 LA 올림픽에서 2회전 경기 도중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경기를 이어간 야마시타는 준결승에서 프랑스의 콜롬보로부터 부상 부위인 오른쪽 다리를 공격 받고 먼저 효과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누르기 한판으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의 종아리 부상은 더 악화됐습니다.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결승전에 출전하기 위해 매트에 오를 때 그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라슈완으로서도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마시타의 오른쪽 다리 대신 왼쪽 다리를 걸려고 하다 되치기를 당해 매트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마시타의 굳히기 기술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눈앞에 두고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의 경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그(라슈완)에게 물었습니다. “야마시타가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라슈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야마시타가 오른쪽 다리를 못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를 공격하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레슬링의 김인섭 선수 기억나시나요? 김인섭은 당시 우리 선수단에서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예선에서 손가락과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그래도 진통 주사를 맞고 투혼을 발휘하며 어렵게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불가리아의 나자리안은 패시브 기회에서 김인섭의 부상 부위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김인섭은 순식간에 10점을 내주고 풀로 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눈물의 인터뷰가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은메달밖에 안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상대 나지리는 부상당한 김인섭의 갈비뼈를 집요하게 공격하여 규칙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승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인섭은 앞서 열거한 야구와 축구의 경우처럼 상대의 불관용적 태도에 대하여 항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통탄해 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상황을 ‘능동적 관용’ 및 ‘이타적 관용’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스포츠에서 관용적 상황이 적용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았다. 그렇다면 스포츠 상황에서 관용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겠는가? 그것은 관용이 가능하게 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상대를 패배시키고 승리를 추구해야하는 스포츠에서 자칫 승리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배려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그것은 단순히 경기의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하는 종목과 자신의 존재를 위한 ‘공존’적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관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어 사회에서 파산을 용인하는 이유도 빚에 얽매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빚의 탕감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회에 있어 더 이익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 불관용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 스포츠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해당 경기에서의 승리가 목적일 것이나 근원적으로는 즐거움의 추구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즐거움의 추구 때문에 스포츠에서 관용의 중요성이 배가 될 것이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경기에 규칙을 지켜 승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상대방의 배려 없는 일방적 승리는 결국 경기내용을 짐승들 간의 난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스포츠 상황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해당하는 스포츠 종목 자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상대가 없는 나 혼자만의 세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5. 맺는말

관용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의 원칙이기보다는 행위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태를 가지고 실천되는 덕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관용이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사회의 갈등과 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기획과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관용의 목적과 대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 관용은 자신의 행동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견디어내며 참아내는 미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통이나 곤경, 권위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관대하게 수용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관용의 윤리는 타자에 대한 행동을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전제로 하며 욕망을 억제하는 일과 관련된 윤리적 덕목인 것이다. 그럼으로 관용의 윤리는 관용의 정당화와 연관된다.

물론 스포츠는 우정이나 자유와 같은 가치들을 육성하지만 인종주의적 전통을 강화 시킨다던가 여성 폄하의 성차별주의를 받아들이는 전통과 약속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럼으로 건전한 가치 선택을 위한 관용에 대한 강조는 강화 될수록 스포츠맨 정신에 합당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와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의 스포츠는 그에 상응하는 규범이 공존의 윤리로서 국제화와 연관됨으로 더욱더 관용의 윤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스포츠 교육을 통한 도덕의 실천을 통해서 관용의 덕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응중, 『관용의 역사』, 푸른역사, 2015.
- 김정효, 『스포츠 윤리학』, 레인보우북스, 2015.
-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 사회의 교육』, 철학과 현실사, 2016.
- 웬디 브라운, 『관용』(이승철 역), 갈무리, 2013.
- 존 롤즈,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 2005.
- 존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최유신 역), 철학과 현실사, 2009.
- 크래츠머, 『스포츠 철학』(김창룡, 안용규, 김홍식 역), 대한미디어, 2001.
- 볼테르, 『관용론』(송기형, 이영미 역), 한길사, 2001.
- 김상범, 「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박준웅, 「롤즈의 관용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G Icheiser, *On Tolerance and Fanaticism : A Dilemma*,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9, 1968-1969.
- Helene Wong, *Ching Chong China men : When Friends Becomes Stronger*, Celebrating the UN Year of Tolerance, Foundation for Peace Stduies/ New Zealand, 4, 1995.
- J. Locke, *The work of John Locke*, vol 6, Thoemmes Press, 1794.
- J. Locke,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Mario Montuori ed, 3, 1983.
- Keating, J. W. *Sportsmanship As A Moral Category*, In Morgan, W. Meier. V., Schneider, A. J (Ed.) *Ethics In Sport*, Human Kinectics, 1964.
- Michael Walzer, *On Tol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 Preston King, *Toleration*, George Allen & Unwin, 1976.
- R. Scott Kretchmar,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Human Kinetics, 1994.
- Thomas Hobbes, *Leviathan*, C. B .Macpherson ed., Penguin Books, 1985.
- Voltaire, *Philosophical Dictionary*, Penguin Books, 1985.

The Ethics of Tolerance in Sports

Yim, Suk-Won (Catholic Kwandong Univ.)

Why is the ethics of tolerance needed? From the major premise of human dignity and freedom, the prevalence of intolerance in reality may be attributed to insensitivity about morality or absence of faith. In fact, we all want to make our society more cultured and sophisticated. If our sports culture is trapped in chronic authoritarianism or nepotism and keeps adhering to commercialism grounded on mammonism,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make it sound. Therefore, in our sports culture, too, we should spread the ethics of tolerance while reducing intolerance as much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course, Tolerance is associated with ethical attitudes to determine how to react to another person's behavior; therefore, it is ethical virtue positively related to the task of suppressing desire. To practice tolerance, ethical autonomy is prerequisite, and tolerance without autonomy is meaningless since it cannot obtain legitimacy for practice. Considering the particular condition of sports, tolerance is not what forces one to choose yes or no but a positive attitude that comes after negation. In brief, ethics of tolerance is even more noteworthy because of the positive attitude to let others secure their rights and freedom more while extending one's own rights and autonomy as well. Phenomena that are prevalent all over our society, for example, indiscreet consciousness about injustice, regionalism equipped with no fairness, or division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where there are no beliefs or theories are what we have to overcome aggressively

through the virtue and ethics of tolerance.

Key words: Tolerance, Coexistence, Altruism, Sportsmanship

임석원 e-mail: siscia@naver.com

| | |
|-------|---------------|
| 투 고 일 | 2017년 07월 15일 |
| 심 사 일 | 2017년 07월 27일 |
| 게재확정 | 2017년 08월 07일 |